

미군정기 검인정 중등 문법 교과서의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에 대한 시론

오현아·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haoh@kangwon.ac.kr)

- I. 들어가며
- II. 왜 미군정기 검인정 중등 문법 교과서인가?
- III. 미군정기 중등 문법 교과서의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의 지정학적 위치 탐색
- IV. 미군정기 중등 문법 교과서의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가능성 탐색
- V. 나오며

I.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미군정 당시에 이루어진 국어과 교육 중 문법 교육에 한정하여 검인정을 통해 발행되었던 문법 교과서를 사(史)적으로 고찰하여 교과서에 서술된 문법 지식의 체계를 구조화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데 있다.

해방 직후, 교육 분야를 보면 취학 인구의 급증과 교육열의 고조에 비하여 교육 시설 및 교원이 태부족(박봉배, 1987: 512~513)한 상황이었고, 미군정청 학무국에서는 현대적 국어 교육의 지표가 되고 이후 교육과정 설계의 좌표가 된 ‘교수요목’을 발표하여 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조항을 마련한 뒤,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교재로 활용했다.

예를 들면, 『한글첫걸음』(1945. 11.), 『초등국어교본』(1945~1946), 『중등 국어교본』(1946~1947), 『한글교수지침』1집(1945. 12), 2집(1946)은 모두 ‘조선어학회’에서 편찬된 것으로, 발간과 거의 동시에 미군정청 학무국이 발행권을 이양하여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하고 보급했다.

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의 연구와 실천은 재야의 각종 학술단체(조선어

학회, 신흥국어연구회, 조선아동문보급학회) 등이 주도가 되어 이뤄지다가 정부 수립 이후 이들이 관료화하면서, 국어교육 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윤여탁 외, 2006: 324~325).

즉, 광복 이후 국어과 교육은 일본어 보급과 조선어과 위축 및 폐지라는 일제강점기의 교육의 영향 아래 교육과정, 학제, 교과서, 교수법 등의 제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광복 이후의 국어 교과서 연구는 국어 교과의 확립 및 국어 교육의 기틀 확립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 국어과 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1)국어교육사의 (1)종적인 차원에서는 ①국어 교과의 형성 및 교과 성격 획득 과정 관련한 연구(박영목·민현식·김종철 외, 2005; 윤여탁 외, 2006; 오현아, 2011), ②국어 교과서의 수록 제재 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조희정, 2005a; 조희정, 2005b; 조희정, 2005c; 서명희·조희정, 2006a; 조희정·서명희, 2006b; 이명찬, 2008), ③교과서 서지사항 및 단원 체계 및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조희정, 2011), 국어과의 개별 내용 영역 변천에 대한 연구(유옥순, 1995; 고영근, 2001; 최호철 편, 2008)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2)횡적인 차원에서는 미군정기에 한정한 검인정교과서의 소설 제재를 다룬 연구로는 최현섭(1990), 미군정기부터 1차 교육과정 고시(1956년) 전까지인 건국기에 한정한 중등 국어 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허재영(2005), 교수요목기를 중심으로 초등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화의 유형과 양상을 다룬 정진현(2005)이 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국어교육사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횡적인 차원에서의 국어교육사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광복 이후 국어 교과서 연구가 이후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아래 이루어진 국어 교과 정체성 및 기틀 확립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어교육사의 횡적인 차원에서 미군정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로 시기를 한정해 문법 교과서에 기술된 문법 지식의 체

계를 구조화하는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이러한 연구가 국어교육 그리고 문법교육 안에서 어떠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왜 미군정기 중등 문법 교과서인가?

그렇다면 왜 미군정기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가?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어 억압·말살 정책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일제의 정책 아래 우리 민족은 민족의 자주 정신과 독립 정신을 내세울 수 있는 민족의식의 성장 매개체로서 조선어 교육을 바라보았고, 조선어연구회 등을 통해 그 성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조선어 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이 ‘민족 정신, 저항 의지’와 같은 키워드 안에서 다루어지다 보니 정작 국어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국어교육의 개별 영역으로서의 문법교육에 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데 2)국어교육사의 개별 영역으로서 문법 교육사 논의는 (1)종적인 차원에서는 ①학교 문법의 전반적 흐름에 관한 연구(고영근, 2001), ②교수요 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분석 연구(최호철 편, 2008)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문법교육사의 획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어교육의 개별 영역으로서의 문법교육의 차원에서 문법교육사의 획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개척될 필요가 있다.

사적인 관점에서의 미군정기의 문법 교과서 분석이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교재사 차원에서 당시의 문법 교과서 자체에 대한 분석 그 자체로도 의미를 지닐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 ‘여기’의 학습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 한다. 즉, 과거의 교과서 분석이 현

재의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181)의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서 선정 영향 요소, 국어 교과서 체제에 대한 수요자 의 요구, 선정률이 높은 국어 교과서 체제 특성 등을 교과서 개발 준거 자료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181)에 따르면 학교 현장의 국어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교과서 체제 구성 요소는 외적 체제보다는 내적 체제이고, 내적 체제 중에서는 ‘내용의 선정’과 ‘내용의 조직’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 내용의 위계화 및 구조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조화’는 ‘내용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정된 문법 지식을 논리적 구조와 학습의 순서를 고려하여 조직하는 것(이춘근, 2001: 413~414)’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의 구조화와 관련해 미군정기 당시의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개별 문법 지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 삼아 이를 이후의 현대 교육과정기의 문법 교과서에 나타나는 문법 교육 내용의 구조화와 비교 분석하는 논의¹를 진

1 이러한 논의는 미군정기 중등 문법 교과서에 나타나는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의 의의를 국어교육사 혹은 문법교육사 차원의 통시적인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의 학습자에게 유효한 현재적 의의를 탐색하기 위한 공시적인 논의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통일 문법 이전 문법 교과서의 경우 ‘연구자마다 문법 지식 체계 자체를 달리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법 지식 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할 것인가’와 관련해 미군정기 중등 문법 교과서가 연구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은 문법 지식 체계가 하나의 정형화된 모범 답안처럼 규칙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연구자마다 문법 지식 체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지점에 문법 지식 체계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즉, 문법 지식 체계 안에서는 실제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사용 과정에서 겪는 규칙과 예외의 언어 현상이 함께 다

행하고자 한다. 이는 교과서 자체 분석에 치중해 단원 체재 및 단원 구성, 문법 범주에 대한 설명 내용, 문법 설명과 연습 문제의 방식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교과서 분석의 관점은 문법 지식의 체계 구조화 측면에서 김호정·박재현·김은성·남기영(2007a)과 남기영·김호정·박재현·김은성(2007b)과 그 맥을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내용 체제 및 조직의 차원, 내용 범위 및 선정의 차원, 내용 표상 및 기술의 차원에서 분석을 진행한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통일문법 이후의 4차부터 7차까지의 국정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법 지식의 구조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통일 문법 이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미군정기 당시의 검인정 문법 교과서들을 대상으로 문법 지식의 체계 구조화 측면의 연구 성과가 도출된다면 현재 학교 문법의 문법 지식의 체계 구조화와 대조 분석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미군정기 중등 문법 교과서의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의 지정학적 위치 탐색

미군정기의 중등 문법 교과서에 나타나는 문법 지식의 구조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1)국어교육사 측면, 2)문법 교육사 측

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언어 현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탐구적인 문법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미군정기'라는 특정 시기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즉, 우리 말글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높았던 '미군정기'의 검인정 문법 교과서에서는 문법 지식들이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 속에서 다루어졌을 것이고, 그러한 검인정 문법 교과서의 문법 지식 체계를 현재의 문법 체계와 대조해 보는 과정이 현재의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문법 지식 체계를 구조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면, 3)문법 지식 체계의 구조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어교육사 측면

국어교육사 측면의 논의는 다시 1)종적인 차원과 2)횡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 종적인 차원

종적인 차원의 논의는 다시 ①국어 교과의 형성 및 교과 성격 획득 과정 관련 연구, ②국어 교과서 수록 제재 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③국어과의 개별 내용 영역 변천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① 국어 교과의 형성 및 교과 성격 획득 과정 관련 연구

먼저 국어과의 형성 과정 및 교과 성격 획득 과정에 관한 연구로는 근대계몽기부터 7차까지의 교육과정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재의 변천을 다룬 박영목·민현식·김종철 외(2005),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재의 변천을 근대계몽기, 일제강점기, 건국기, 교육과정기로 나누어 상세하게 다룬 윤여탁 외(2006), 근현대 국어 교육 자료 변화 양상을 초등에 한정해 목표 차원, 사용자 차원, 제재 선정 차원, 내용 제시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룬 오현아(2011)를 들 수 있다.

② 국어 교과서 수록 제재에 관한 연구

국어 교과서 수록 제재에 관한 연구는 국어 교과서 수록 제재 변천에 관한 연구와 교과서 수록 제재의 정전화 과정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먼저 국어 교과서 수록 제재 변천에 관한 연구로는 건국과도기부터 7차 교육과정 기까지의 교과서 수록 현대 문학 제재 변천을 다룬 조희정(2005a), 고전 제재 변천을 다룬 조희정(2005b), 건국과도기부터 7차 교육과정기까지 문헌

제재를 중심으로 고전 제재 변천을 다룬 조희정·서명희(2006b), 초등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을 다룬 서명희·조희정(2006a)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 수록 제재의 정전화 과정에 관한 연구로는 홍길동전과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고전 제재의 교과서 수용 시각을 검토한 조희정(2005c)과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김소월 시의 정전화 과정을 다룬 이명찬(2008)i 있다.

③ 교과서 서지사항 및 단원 체계 및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

교과서 서지사항 및 단원 체계 및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로는 교수요목기 이전의 최초의 한글 학습서로 베스트셀러였던 『한글 첫걸음』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과정별로 초·중·고등학교 학습자가 접하는 첫 교과서의 초판본을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고찰한 조희정(2011)이 있다.

④ 국어과의 개별 내용 영역 변천에 대한 연구

국어과의 개별 내용 영역 변천에 대한 연구로는 미군정기부터 5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고전시가 단원을 중심으로 고전시가 교육의 변천에 대해 다룬 유옥순(1995)가 있다. 문법 교육의 변천에 대해 다룬 연구로는 고영근(2001)과 최호철 편(2008)i 있으나, 항목을 구분하여 뒤에서 다루었다.

2) 횡적인 차원

횡적인 차원의 논의로는 미군정기에 한정한 검인정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제재 목록을 대상으로 작가, 작품 유형, 계재 방법에 대해 다룬 최현섭(1990), 건국기의 중등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건국기의 학제와 교과서 정책 변천, 중등 국어 교과서의 발행 역사와 제재 및 내용 변화를 다룬 허재영(2005), 교수요목기를 중심으로 초등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화의 유형과 양상을 다룬 정진현(2005)이 있다.

2. 문법교육사 측면

문법 교육사 측면에서 종적인 차원의 연구로는 민족어 학교 문법의 발자취를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남한의 학교 문법, 북한의 학교 문법, 옛 소련과 중국 한인사회의 학교문법으로 구분하여 당시의 문법 체계와 문법 용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고영근(2001)과 교수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재와 구성, 체언, 용언, 수식언과 독립언, 조사, 어미, 조어법, 문장 성분, 구문도해, 음운으로 그 문법 범주를 구분하여 분석한 최호철 편(2008)이 있다. 그러나 문법 교육사의 횡적인 차원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측면

문법 지식 체계의 구조화 측면에서는 이론적 차원의 논의와 실제적 차원에서 분석을 진행한 논의를 구분하였다.

1) 이론적 차원

이론적 차원의 논의로는 문법 교육 내용의 계열화에 대해 다루면서 문법 지식 체계의 구조화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는 이춘근(2001)과 경험 구조로서 지식의 구조를 재해석한 남가영(2007)이 있다.

2) 실제적 분석 차원

실제적 분석 차원에서는 문법 개념을 담고 있는 전문어인 문법 용어들에 주목하여 문법 교과 특유의 지식의 구조인 문법 지식 체계를 탐색하기 위해 4차부터 7차에 이르는 시기의 국정 문법 교과서를 분석한 김호정·박재현·김은성·남가영(2007a)과 남가영·김호정·박재현·김은성(2007b)이 있다.

IV. 미군정기 중등 문법 교과서의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가능성 탐색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미군정기(1945~1948)의 교과서 정책은 1945년 4월 6일 군정청 내에 학무과를 두면서 시작되었다. 이 학무과는 1946년 3월 1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기구 개편이 있었으며, 같은 해 7월 10일 문교부 사무규정에서 편수국을 두어 교과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무과에서 문교부 편수과로의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과서 개발 업무를 모두 총괄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미군정기의 교과서 개발은 민간단체에 위촉하거나, 개인이 저작한 교재를 검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교수요목’이 제정되고 편수국 업무가 자리를 잡아가기 전에는 우선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촉하여 교과서 개발을 맡겼다. 그 결과 국어과와 공민과는 조선어학회에서 교과서 개발을 맡았으며, 국사과는 진단학회에서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 단체의 교과서는 저작자가 민간 단체이지만 발행권은 군정청 문교부에 있었다(허재영, 2005: 462).

즉, 당시 정식 정부 형태가 아닌 미군정은 잠정적 행정 기관에 불과할 뿐, 실제 교과서를 만들 학문적·행정적 구성력을 지니지 못했다. 따라서 미군정은 ‘임시로’ 조선어학회의 연구진의 힘을 빌려서 책을 만들고 이를 발행함으로써 국어교과서를 급히 보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학무국에서 상당수의 국어 교재를 발간하는 1947년까지 지속된다(윤여탁 외, 2006: 350).

이 당시 조선어학회 ‘교재편찬위원회’의 집필 위원과 심의위원을 보면 심의위원으로는 ‘이희승, 이승녕, 정인승, 장지영, 윤재천, 이호성, 방종현, 이태종, 윤복영, 윤성용’이며, 심의위원은 ‘조윤제, 최현배, 이극로, 김윤경, 김명

제, 이은상, 이세정, 양주동, 주재중, 조병희' 등으로(박봉배, 1987: 522), 당시 국어학계를 이끈 지식인이라 할 수 있으며 검인정을 통해 보급된 문법 교과서의 저자들과 일정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군정기의 학제는 1945년 출범한 교육위원회 제도 분과 위원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립된 것으로, 현재의 학제와 달리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초급과 고급의 구분이 있어 현재의 고등학교급에 해당하는 교과서는 중학교와 구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 본고에서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연구 가능하다고 판단된 미군정기 중등 문법 교과서의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미군정기 중등 검인정 문법 교과서 목록

학교급	발행 시기	편찬자	서명	발행자
중학교	1946	최현배	중등조선말본	정음사
	1946. 9. 7	이상춘	국어문법	조선국어학회
	1947. 8. 15	김근수	중학국문법책	문교당출판
	1947. 12. 1	장하일	중등 새말본	교재연구사
	1948. 3. 25	최현배	중등조선말본	정음사
	1948. 5. 15	김윤경	중등말본	동명사
고등학교	1946. 10. 20	정렬모	신편고등 국어문법	한글문화사
	1946. 11. 1	박창해	쉬운 조선 말본	계몽사

2) 연구 방법

문법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미군정기 검인정 중등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각 교과서의 목차 구조, 단원별 문법 지식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목차 구조를 통해 교과서 필자가 문법 교과서 안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 단위와 문법 범주를 7차 교육과정기의 문법 교과서와

비교해 보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원별 문법 지식 체계의 구조화를 통해 각 문법 범주별로 당시의 문법 교과서의 체계 및 기술 방식이 어떠한지를 7차 교육과정기의 문법 교과서와 비교해 보는 과정을 통해 동일 문법 범주에 대한 기술 방식의 변천을 살펴보고, 해당 문법 범주의 효과적인 지식의 체계 구조화 방안이 모색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의 독서·문법 검정 교과서 개발을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는 현대 교육과정기의 마지막 국정 교과서라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선행 연구인 김호정·박재현·김은성·남가영(2007a)과 남가영·김호정·박재현·김은성(2007b)에서는 전문어인 문법 용어를 통해 해당 문법 범주의 지식 체계를 구조화하는 연구 과정을 거치는데, 연구 범위를 전문어로만 한정할 경우 문법 기술 과정에서 설명의 방식과 설명과 예시의 관계, 문법 설명인 본문과 연습 문제인 익힘 부분과의 관계나 제시 방식을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 범위를 문법 용어로 한정하지 않고 ‘문법 용어, 문법 용어의 정의, 문법 범주의 하위 구분, 예문, 익힘 문제’까지 포함하여 특정 문법 범주의 지식의 체계 구조화뿐만 아니라 해당 문법 범주 단원의 구성 방식까지 함께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ThinkWise 12의 마인드 맵을 활용하여 형상화가 가능하다.

미군정기의 중등 문법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과 문법 지식의 체계 구조화를 통해 현대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사적인 관점에서 문법 기술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 과정을 되짚어 보는 과정을 통해 문법 범주별로 효과적인 지식의 체계 구조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2. 전체 문법 범주 인식의 차원

전체 문법 체계 인식의 차원을 살펴보기 위해 미군정기 중등 문법 교과서 중 하나인 최현배(1946)의 목차 구조도를 ThinkWise 12의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형상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통해 우리는 당시 최현배(1946)에 나타난 언어 단위 인식이 ‘음성, 품사론 중심의 단어, 문장 차원’에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기 국정 문법 교과서인 교육인적자원부(2002)의 목차 구조도인 그림 2와 비교²해 보면, 최현배(1946)에서는 현재 학교 문법의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9품사가 아닌 ‘이름씨(명사), 대이름씨(대명사), 셈씨(수사), 움즉씨(동사), 어떻씨(형용사), 잡음씨(지정사), 어떤씨(관형사), 어찌씨(부사), 느낌씨(감동사), 토씨(조사)’의 10품사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품사 분류의 차이는 현재 학교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인 ‘이다’와 부정 형용사 ‘아니다’를 최현배(1946)에서는 잡음씨로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최현배(1946)에서는 ‘씨가름, 이름씨, 대이름씨, 움즉씨’ 등의 고유

2 이 연구는 미군정기 검인정 중등 문법 교과서의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를 위한 획적 연구의 시론으로서, 그 획적 연구의 기본 분석 틀은 전체 문법 범주 인식의 차원과 개별 문법 범주 기술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미군정기 검인정 중등 문법 교과서의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에 관한 획적 차원의 연구 이후에는, 종적 차원에서 미군정기 당시의 문법 지식 체계 구조와 국정 문법 교과서로서의 제7차 교육과정기 문법 교과서의 문법 지식 체계 구조의 대조 고찰을 통한 효과적인 문법 지식 체계 구조 탐색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므로 시론 성격인 이 연구에서는 획적 차원의 기본 분석 틀과 종적 차원의 대조 논의를 단적으로 보이기 위해, 미군정기 중등 문법 교과서 중 하나인 최현배(1946)과 7차 교육과정기 국정 문법 교과서인 교육인적자원부(2002)를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획적 차원에서 미군정기 검인정 중등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전체 문법 범주 인식과 개별 문법 범주 기술의 문제를 다루고, 이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축적된 이후에 종적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기 국정 문법 교과서와의 대조를 통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여기 용어 옆에 한자어계 용어를 팔호로 병기하고 있어 당시 문법 용어가 고
유어계와 한자어계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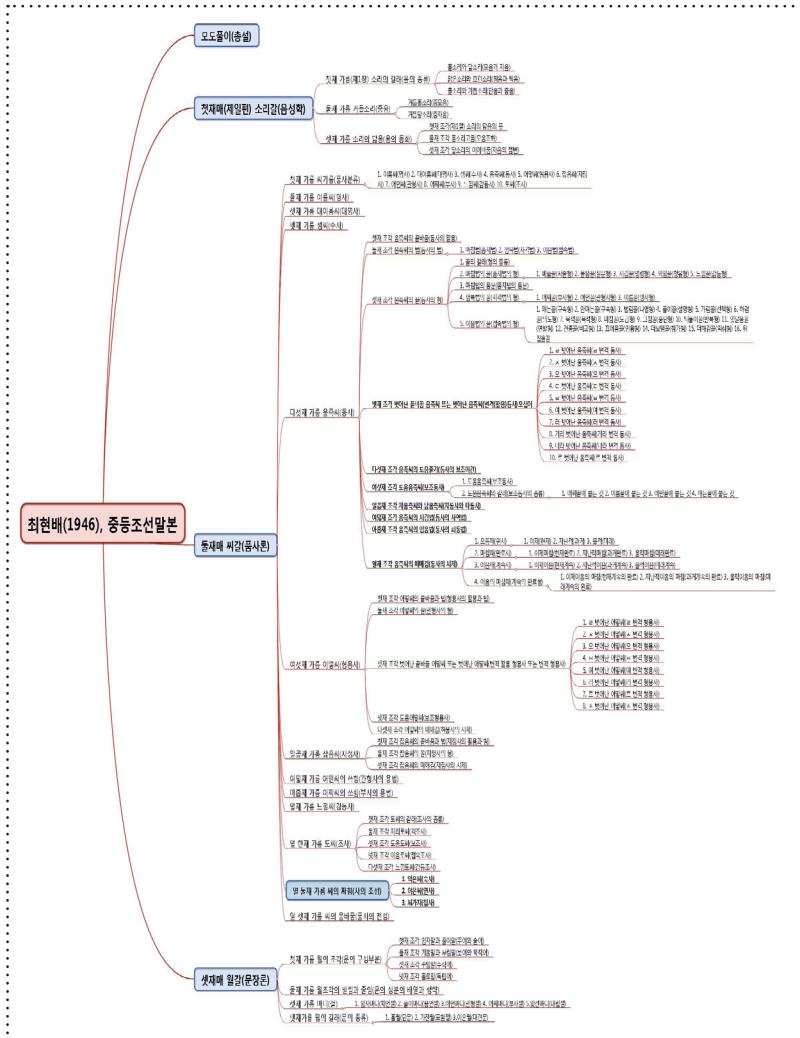


그림 1. 최현배(1946)의 목차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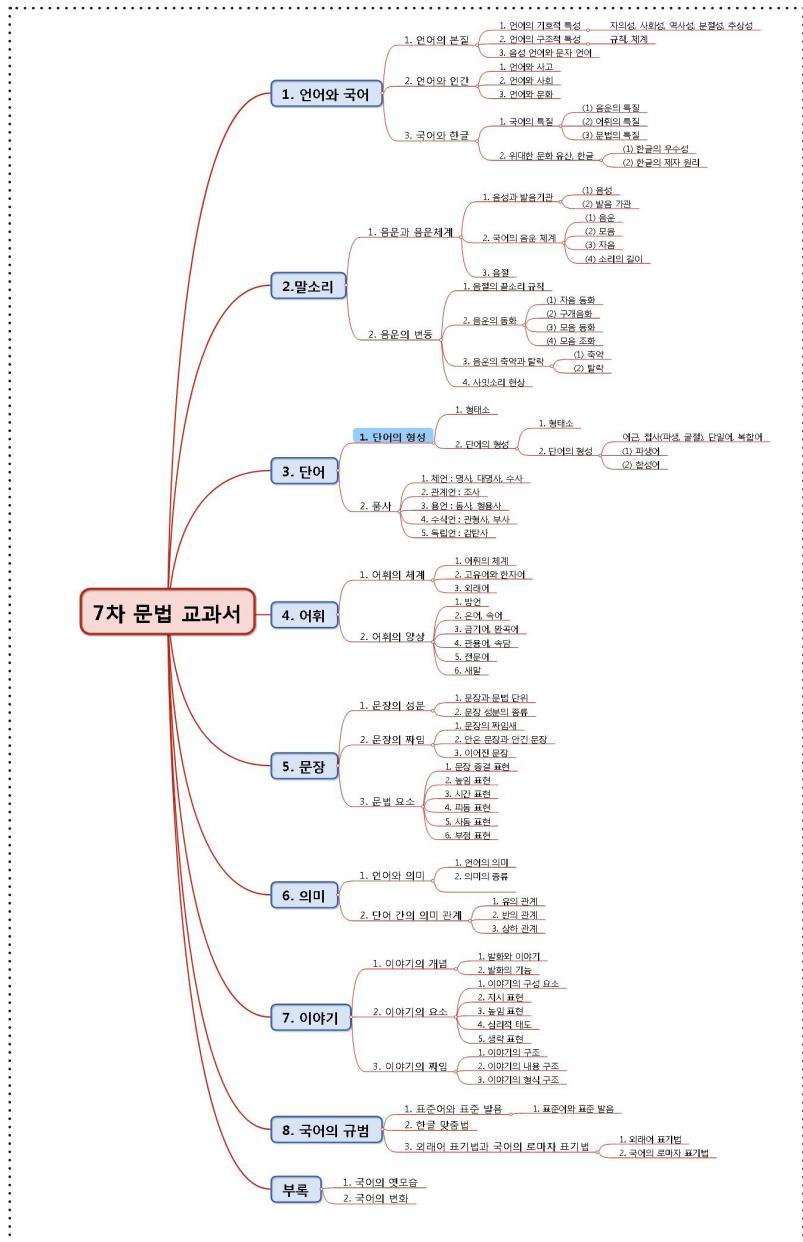


그림 2. 교육인적자원부(2002)의 목차 구조도

3. 개별 문법 범주 기술의 차원

개별 문법 범주의 지식 체계를 비교해 보기 위해 최현배(1946)과 교육인적자원부(2002)에서 ‘단어의 형성’ 관련 부분을 추출해 형상화해 보면, 다음 그림 3,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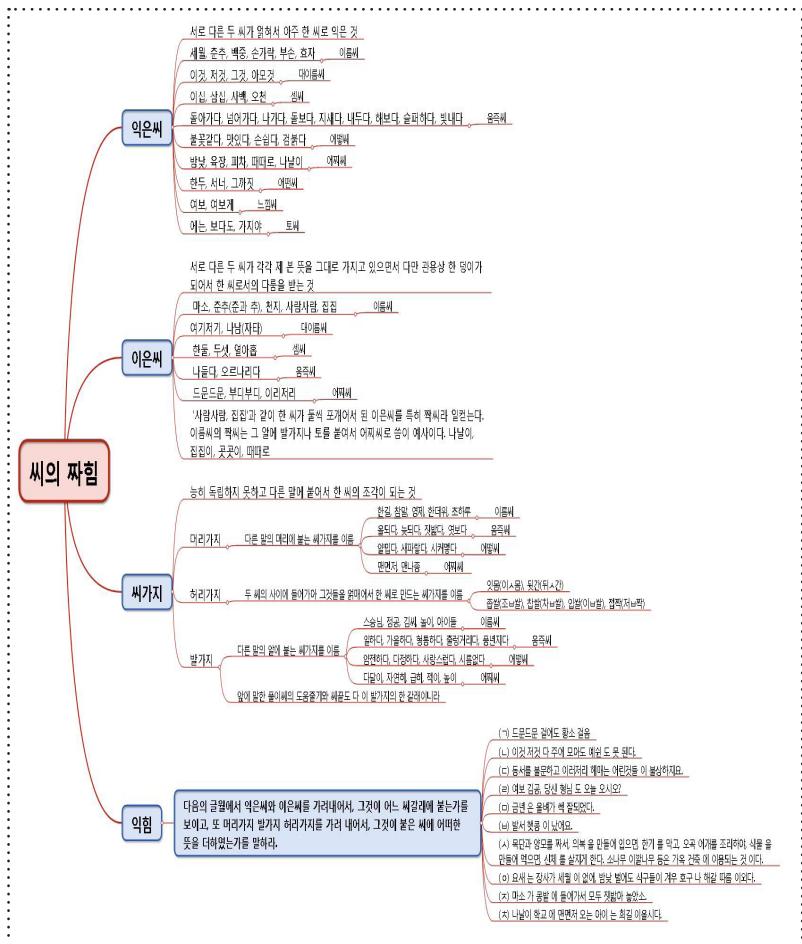


그림 3. 최현배(1946: 146~151), ‘열 둘째 가름 씨의 짜임’ 단원 문법 지식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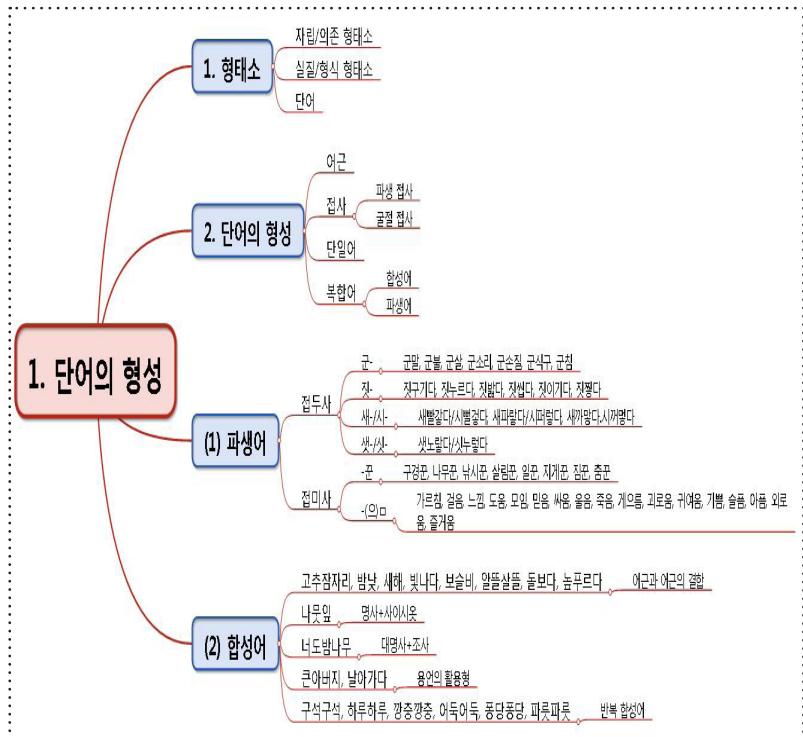


그림 4. 교육인적자원부(2002: 83~87), 문법 교과서 '3. 단어' 중 '1. 단어의 형성' 문법 지식 구조도

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2002)에서는 단어의 형성을 형태 중심의 기술을 바탕으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는지 아니면 어근과 접사가 결합했는지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되는데, 최현배 (1946)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면서 의미가 익어져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본뜻을 유지하면서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익은씨’와 ‘이은씨’로 달리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2002)에서는 국어의 접사를 접두사와 접미사로만 구분하는데 반해, 최현배(1946)에서는 ‘머리가지, 허리가지, 발가지’로

‘허리가지’라는 별도의 구분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잇몸, 뒷간’에서의 ‘ㅅ’과 ‘좁쌀, 찹쌀’에서의 ‘ㅂ’을 들어 단어 형성 관련 문법 지식 기술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V. 나오며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학교 현장의 국어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교과서 체제 구성 요소는 외적 체제보다는 내적 체제이고, 내적 체제 중에서는 ‘내용의 선정’과 ‘내용의 조직’을 가장 중요시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181)고 한다.

즉, 국어과의 내용의 선정과 배열, 조직의 문제가 교과서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어과의 내용 영역 중에서도 지식 교과로서의 성격의 가장 강한 문법 교과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학교 문법에서 기술되고 있는 개별 문법 범주들의 지식의 구조를 체계화하고자 시도한 실천적인 연구들이 김호정·박재현·김은성·남가영(2007a)과 남가영·김호정·박재현·김은성(2007b) 말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사 그리고 문법교육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의 국어 학습자들을 위해서도 문법 교과서의 지식의 체계에 대한 분석이 실제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문법 이후 국정 문법 교과서의 문법 기술이 일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광복 이후 우리말과 우리 문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았으며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검인정으로 문법 기술 방식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미군정기의 중등 문법 교과서 분석이 효과적인 문법 지식 체계 구조 탐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문법의 언어 단위 인식, 문법 범주 구분, 문법 세부 설명 방식 등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문법 지식 체계 구조의 탐색은 이후의 문법 교과서 개발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상 한국어 문법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논문은 2012.10.04. 투고되었으며, 2012.11.11. 심사가 시작되어 2012.11.3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영근(2001),『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2),『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근수(1947),『중학국문법책』, 문교당출판.
- 김윤경(1948),『중등말본』, 동명사.
- 김호정·박재현·김은성·남가영(2007a),「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연구(1): 음운」,『국어교육학연구』28, 국어교육학회, pp. 275~300.
- 남가영(2007),「문법교육의 “지식의 구조” 체계화 방향」,『국어교육』123, 한국어교육학회, pp. 341~374.
- 남가영·김호정·박재현·김은성(2007b),「문법 용어를 통한 문법 지식의 구조 체계화 연구(2) : 형태」,『우리말연구』21, 우리말학회, pp. 177~209.
- 박봉배(1987),『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영목·민현식·김종철 외(2005),『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박창해(1946),『쉬운 조선 말본』, 계몽사.
- 서명희·조희정(2006a),「초등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2)」,『한국초등국어교육』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 415~458.
- 오현아(2011),「근현대 국어 교육 자료 변화 양상 연구-초등 국어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3~37.
- 유옥순(1995),「고전시가 단원의 변천에 대한 연구」,『이화교육논총』6,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 137~156.
- 윤여탁 외(2006),『국어교육 100년사 I』,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명찬(2008),「중등교육과정에서의 김소월 시의 정전화 과정 연구」,『독서연구』20, 한국독서학회, pp. 305~347.
- 이상춘(1946),『국어문법』, 조선국어학회.
- 이재현(2000),「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교육 실태연구-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에서 제 6차 교육과정기까지를 중심으로」,『초등사회과교육 12』,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pp. 465~494.
- 이춘근(2001),「문법 교육 내용의 계열화 분석 및 평가」,『국어교육학연구』13, 국어교육학회, pp. 411~465.
- 장하일(1947),『중등 새말본』, 교재연구사.
- 정렬모(1946),『신편고등 국어문법』, 한글문화사.
- _____ (1948),『고급 국어문법』, 고려서적주식회사.
- 정진현(2005),「초등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화의 유형과 양상 - 교수요목기(1946~1954)를 중심으로」,『동화와 번역』10,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pp. 287~315.
- 조희정(2005a),「교과서 수록 현대 문학 제재 변천 연구-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 교육과정기까지 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24, 국어교육학회, pp. 435~481.
- _____ (2005b),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 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문학교육학』17, 한국문학교육학회, pp. 277~326.
- _____ (2005c), 「고전 제재의 교과서 수용 시각 검토(1) -〈홍길동전〉과 〈관동별곡〉을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1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85~122.
- _____ (2011),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 연구」,『국어교육학연구』42, 국어교육학회, pp. 41~72.
- 조희정·서명희(2006b),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1) - 건국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문헌 제재를 중심으로」,『문학교육학』19, 한국문학교육학회, pp. 411~444.
- 최현배(1946),『중등조선말본』, 정음사.
- _____ (1948),『중등조선말본』, 정음사.
- 최현섭(1990),『미군정기 검인정교과서 소설 제재 연구』, 논문집 24-2, 인천교육대학교, 101~138쪽.
- 최호철 엮음(2008),『국어 문법 교과서 연구』, 제이앤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 방안』, 연구보고 RRO 2011-4.
- 허재영(2005), 「건국기의 중등 국어교과서 연구-국정교과서를 중심으로」,『어문연구』3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457~481.

미군정기 검인정 중등 문법 교과서의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에 대한 시론

오현아

본 연구의 목적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미군정 당시에 이루어진 국어과 교육 중 문법 교육에 한정하여 검인정을 통해 발행되었던 문법 교과서를 사(史)적으로 고찰하여 교과서에 서술된 문법 지식의 체계를 구조화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데 있다.

광복 이후 국어과 교육은 일본어 보급과 조선어와 위축 및 폐지라는 일제강점기의 교육의 영향 아래 교육과정, 학제, 교과서, 교수법 등의 제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광복 이후의 국어 교과서 연구는 국어 교과의 확립 및 국어 교육의 기틀을 확립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 국어과 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1)국어교육사의 (1)종적인 차원에서는 ①국어 교과의 형성 및 교과 성격 획득 과정 관련한 연구(박영목·민현식·김종철 외, 2005; 윤여탁 외, 2006; 오현아, 2011), ②국어 교과서의 수록 제재 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조희정, 2005a; 조희정, 2005b; 조희정, 2005c; 서명희·조희정, 2006a; 조희정·서명희, 2006b; 이명찬, 2008), ③교과서 서지사항 및 단원 체계 및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조희정, 2011), 국어과의 개별 내용 영역 변천에 대한 연구(유우순, 1995; 고영근, 2001; 최호철 편, 2008)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2)횡적인 차원에서는 미군정기에 한정한 검인정교과서의 소설 제재를 다룬 연구로는 최현섭(1990), 미군정기부터 1차 교육과정 고시(1956년) 전까지인 건국기에 한정한 중등 국어 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허재영(2005), 교수요목기를 중심으로 초등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화의 유형과 양상을 다룬 정진현(2005)가 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국어교육사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횡적인 차원에서의 국어교육사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광복 이후 국어 교과서 연구가 이후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아래 이루어진 국어 교과 정체성 및 기틀 확립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어교육사의 횡적인 차원에서 미군정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로 시기를 한정해 문법 교과서에 기술된 문법 지식의 체계를 구조화하는 연구를 본격화하기 전에 시론으로서 이러한 연구가 국어교육 그리고 문법교육 안에서 어떠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문법 지식 체계의 구조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핵심어 미군정기, 중등 문법 교과서, 문법 지식 체계, 구조화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ing of the Grammatical Knowledge System in Secondary Grammar Textbooks Authorized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Oh, Hyeon-ah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historically grammar textbooks published through authorization by the government and to show the necessity for research to structure the grammatical knowledge system presented in textbooks, focusing on grammatic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ducted under the rul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an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fter the Liberation, it was difficult to solve at once all problems related to the national curriculum, school system, textbooks, teaching methods, etc. establishe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which had promoted the spread of the Japanese language and the shrinkage and removal of the Korean language. Accordingly, research on Korean language textbooks after the Liber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is closely connec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revious studie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during this pe-

riod can be divided into the longitudinal dimension and the horizontal dimen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istory. Studies in the longitudinal dimension include: ①studies o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he development of its curricular characteristics(Park Yeong mok, Min Hyeon sik, Kim Jong cheol et al., 2005; Yoon Yeo tak et al., 2006; Oh Hyeon ah, 2011); ② studies on changes in materials included in Korean language textbooks(Jo Hee jeong, 2005a; Jo Hee jeong, 2005b; Jo Hee jeong, 2005c; Seo Myeong hee & Jo Hee jeong, 2006a; Jo Hee jeong & Seo Myeong hee, 2006b; Lee Myeong chan, 2008) and ③studies on changes in the bibliography, unit system and contents of textbooks(Jo Hee jeong, 2011) and on changes in the content areas of the Korean language(Yoo Ok soon, 1995; Ko Yeong geun, 2001; Choi Ho cheol, 2008). Among studies in the horizontal dimension, Choi Hyeon seop(1990) analyzed the materials of novels in textbooks authorized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Heo Jae yeong(2005) analyzed secondary Korean language textbooks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until the announcement of the 1st National Curriculum in 1956, and Jeong Jin heon(2005) studied the types and patterns of traditional fairytales in elementary textbooks focusing on the period of syllabus.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at advanced discussions o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not been sufficient and, in particular, discussions o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horizontal dimension have been quite insufficient.

Thus,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studies on Korean language textbooks since the Liberation became crucial foundation for the es-

tablishment of the identity and framework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under the government led N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as preliminary research before full scale studies to restructure the grammatical knowledge system described in grammar textbooks, limited the scope of research to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horizontal dimen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istory and discussed the geopolitical position of such stud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grammatical education and how the grammatical knowledge system can be structured.

KEYWORDS the U.S. Military Government, Secondary Grammar Textbooks, Grammatical Knowledge System, Structuring